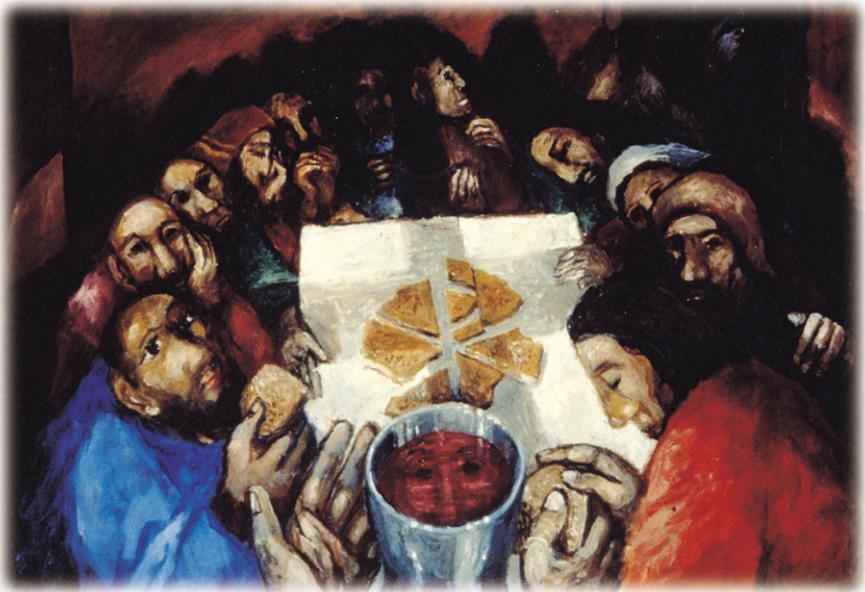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9년 12월호



천주교마산교구  
[www.cathms.or.kr](http://www.cathms.or.kr)

## 소공동체 기도

사랑의 근원이시며 친교의 모범이신 삼위일체의 하느님!  
저희들은 초대 교회 신자들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소공동체 운동을 활발히 실천하여  
친교와 봉사과 증거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오니  
성령의 은사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복음 선포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 소공동체 살림살이

주간	활동예정사항	나눔사항
대림 2주일		
대림 3주일		
대림 4주일		
예수 성탄 대축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 복음나누기 7단계

## 1. 시작성가

## 2.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 3. 복음나누기 7단계

###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 절부터 ... 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6단계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하여 토의한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4.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

---

## 길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누구나 할것 없이 ‘무당 기질’ 이 있다고 합니다. 별일 아닌 것에 흥분을 잘하고 기분만 맞으면 내내 신명을 냅니다. 어떤 이들은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질서가 없다고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흔들여 대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이고, 한바탕 놀이 마당을 통해서 근심을 삭이고 마음의 불안을 풀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푼다는 것은 곧 자유스러워짐을 뜻합니다. 미움이나 압박감, 서러움과 원한 맺힌 것들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맺힌 것을 푼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회개의 본뜻은 ‘얼굴을 다시 돌린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출발한다’ 입니다. 흔히 이해하듯 ‘잘못을 뉘우친다’ 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자세, 본래의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개방적인 자세가 갖추어질 때에 회개의 온전한 모습이 갖추어 질수 있습니다.

믿음의 불을 밝히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 (중략) ...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루가 3,5)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본래 우리 모두가 가야할 길을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하느님과 이웃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들을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미움을 풀지 못했기에 그것을 마음의 병으로 간직하고, 하느님께 대한 죄스러움을 풀지 못했기에 우리의 신앙을 후회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 누구를 위한 대림 시기인지 생각하면서,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회개의 참뜻을 되새기도록 합시다.

## 대림 3주일 12.13 자선주일

루카 3,10-18

## 사랑과 자비가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시다

‘나누어 주어라!’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3,11) 2천 년 전 주님을 잘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묻는 군중에게 대답한 세례자 요한의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거둬 들려오는 복음입니다. 쓰고 남아서가 아니고 내 것이 소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내 소유물을 나만의 것인 줄로만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시기, 우리는 저마다 혼자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빛나게 나타나시는 그분을 알아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과 안전만을 생각하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는 매순간 거둬 새로 시작하는 새 출발로 나타나야 합니다. 매일 만나는 형제 자매나 낯선 사람들의 모습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표징을 알아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대림 3주일을 <자선의 날>로 정하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교적 자선 행위란 단순한 자선과 나눔만이 아니라 자비와 선하심의 원천이신 아기 예수님을 닮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까지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 바치셨던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의 닮은 꼴이어야 합니다. 초라한 형제, 밑게 보이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나눌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내가 기다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 사랑과 자비가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니다.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 주리라' 하는 노래 가사가 아름다운 기도와 사랑의 다짐이 될수 있음을 생각해 봅시다.

## 너 없이... 너 있어...

별써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뵈 수 없는 하느님께서서 우리와 꼭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활태도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살펴 보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성탄축제의 분위기가 최고로 높은 지금, 외적인 것에는 지나칠 정도로 애를 쓰는 반면 내면적인 것에는 최소한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현 세대 안에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만이라도 성탄 축제를 진심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학교의 영적지도 신부님께서 신학생들에게 늘 강조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너 없이 너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너 있어 너를 구원하신다.”라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서는 ‘너 없이’, 즉 무(없음)의 상태에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이제는 ‘너 있어’, 즉 인간 세상의 협력이 있어야만 당신의 구원사업을 이루십니다. 당신이 낳으신 인간세상을 구원사업의 협력자요, 동반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인간 세상을 향해 도와줄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인간 편의 동의(同意)를 구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첫 동반자로 삼으시는 대상은 나자렛의 이름 없는 여인, 마리아(Maria)입니다. 마리아는 여인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모태(母胎)를 봉헌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침으로써 하느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직되지 않은, 생명이 꿈틀거리고 살아 숨쉬는 방식으로 구원사업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느님께서서는 결코 당신 혼자 모든 것을 완성하시지 않습니다.

\* 부족한 우리 인간 세상의 도움과 협력을 바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 추운 겨울, 하느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예수 성탄 대축일, 1225

요한 1,1-18

##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아름다운 노래는 1818년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오베른도르프 라는 곳에서 퍼져 나갔습니다. 이곳 성당에 새로 부임해온 보좌 신부 요셉 모어(Josef More)와 성당의 반주자 프란츠 그루버(Franz Gruber)는 무척이나 음악을 사랑하고, 성가에 대한 남다른 성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본당의 오르간이 항상 말뚝을 부렸습니다.

모어 신부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창밖으로 마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참으로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고요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 라틴어로 시 한편을 적게 됩니다. 당장에 그는 시를 들고 그 성당의 반주자이자 학교의 음악 선생인 그루버를 급히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시를 한 편 써 보았습니다. 이 시를 작곡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성탄미사 때 기타연주를 하면 어떨까요?” 기타 반주와 더불어 이중창과 합창을 할 수 있는 곡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는 밤 12시 자정 미사에 그루버가 베이스를, 모어 신부가 기타 반주와 함께 테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 절의 마지막 두 소절은 성가대에 의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만들어 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노래는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가 되었지만 아마도 예전의 한 작은 시골 성당의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 노래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만상이 잠든 밤, 홀로 양친은 깨어 있고 귀연 금발의 천상아기...’ 이 감동적인 노래는 성당 안을 고요와 평화로 이끌어 갔고 더 많이 불려져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오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와 생각을 바꾼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1227 가정 성화 주간 루가 2,41-52

우리 가정의 표본인 성가정

오늘은 성가정 축일입니다. 성가정이란 예수, 마리아, 요셉께서 나자렛에서 이루어 사신 가정을 말합니다. 나자렛 성가정은 마리아의 동정 잉태로부터 시작하여 아드님 예수의 특별한 운명,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들을 소화해 내야 하는 평범한 목수 요셉, 이 모든 요소들이 참으로 무리없이 조화를 이루는 데서 축복받은 성가정의 성스러움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과 처지가 너무도 달랐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이탈하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고 서로 헌신하며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나자렛 성가정은 모든 가정의 모범과 표본이 됩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보금자리이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기초가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 평화가 깃들이고 참된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으며 구원의 길로 나아갈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평탄치 못할 때, 사람은 뼈뿔어지게 되고 불행하게 되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상처를 받게 될 때 죄와 악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한 개인과 그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성가정을 이루려면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먼저 희생하는 마음, 가족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나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이 우리의 가정 안에 꽃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하느님은 단순히 우리의 인간성만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성을 표현하고 성장시키고 충만케 하는 삶의 방식과 평범한 제도인 '가정' 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 깨어 있음의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7번 “구원의 메시아” 1,3절을 부릅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저희의 마음을 당신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 빛이신 주님, 저희가 서로에게 빛이 되게 하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4대강 살리기



가난한 이의 모습



촛불

#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마르코 복음 13, 32-37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이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다. 그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다. 그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수도원 문 앞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주던 한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방에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얼굴 모습이 희미해 그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것인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그분의 모습이 조금 더 밝아지곤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환영을 응시하고 있을 때 수도원 문 앞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종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리를 뜰 수 있단 말인가? 천상에서 찾아온 손님 곁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의무인 어려운 이들을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로 망설이던 그는 결국 의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작별인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러 나갔습니다. 이윽고 임무가 끝나고 날이 어두워진 뒤 그는 방으로 돌아와 불을 켜했습니다. 그 순간 방안이 천상의 빛으로 가득찼습니다. 이제는 희미한 빛이 아니라 태양처럼 빛나는 그리스도께서 성스럽고 온화한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일하러 가지 않았다면 나는 아주 가버렸을 것이다.”

**진행자** 깨어 있음은 준비된 자세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바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본당에서 깨어 있지 않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않아 불편을 준 적은 없는지 나누어 봅니다.

### 기타토의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91번 “구세주 빨리 오사” 2,3절을 부릅니다.

## ‘아듀 2009’

가정에서 온 가족이 동이와 연필을 준비해서 모여 앉습니다.

\* 준비물 - 가족 수만큼의 종이와 펜, 쓰레기통

### 가정기도를 시작하며

**진행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중의 한 사람이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 주세요.

### 말씀과 함께

**진행자** 한 사람이 다음의 성경말씀을 읽어주세요.

#### †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3, 13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진행자** 이번엔 다 함께 소리 내어 다시 한 번 읽어요.

(다 읽은 후)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합니다.

### 말씀 나누기

- ① 성경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② 한 해를 살아오면서 느꼈던 소감을 돌아가면서 발표해 봅시다.

### 함께 생각하기

**진행자** 오늘의 주제는 ‘아듀 2009’ 인데, 아듀(Adieu)는 작별인사를 할 때 쓰는 프랑스어입니다. 지금부터 올 한 해 동안 지나간 시간의 마디들을 되돌아보고 차분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 1) 가족 모두 각자 종이를 한 장씩 받은 후 반으로 접었다가 편다.
- 2) 접혀졌던 부분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고, 오른쪽에는 슬프고 괴롭고 아쉬웠던 일들을 적는다.
- 3) 접혀진 부분을 반으로 자른 후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을 적었던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슬프고 괴롭고 아쉬웠던 일들을 적었던 부분을 갈기갈기 박박 속 시원하게 찢어버린 후 휴지통에 넣는다.

## 생각 나누기

- ① 한명씩 돌아가면서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 ② 슬프고, 괴롭고, 아쉬웠던 일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 ③ 가족에게 특별히 용서를 청하고 싶은 일이나, 용서를 해주고 싶은 일이 있는지 대화를 나눠 보세요.

## \* 함께 실천해요!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용서를 진심으로 실천하고 싶지만 감정적 어려움 때문에 실행하기 어렵다면 먼저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내리는 순간부터 용서는 시작된다.

- 송봉모의 「상처와 용서」 中

용서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 없는 용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용서를 결심할 때입니다.

## 가정 기도

### 가족회의

**진행자** 가족회의의 시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사항이나 의논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가족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 평화의 인사

**진행자** 지금부터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방법은 온 가족이 돌아가며 포옹하고, 부모님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 주세요.

### 가정기도를 마치며

**진행자** 다함께 손을 잡고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

## 이달의 성인

- 1일 성 나훔 예언자, 성 아나니아 순교자, 성 아제리코 주교, 성 안사노 순교자, 성에바시오 주교 순교자, 성 엘레지오 주교, 성 올림피아데스 순교자, 성 우르시치노 주교, 성녀 나탈리아 수절
  - 2일 성 논노 주교, 성 빅토리오 순교자, 성 폰시아노 순교자, 성녀 마르타나 순교자, 성녀 바울리나 순교자, 성녀 비비아나 순교자, 성녀 아드리아 순교자
  - 3일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사제, 성 마우로, 성 카시아노 순교자, 성 클라우디오 순교자, 성녀 솔라 은수자, 성녀 아탈리아 동정, 성녀 힐라리아 순교자
  - 4일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 사제 학자, 성 멜레시오 주교, 성 오스문도 주교, 성 클레멘스 증거자, 성녀 바르바라 동정 순교자, 성녀 베르토아라 여원장, 성녀 아다 여원장
  - 5일 성 달마시오 주교 순교자, 성 마우로, 성 바소 주교 순교자, 성 사바 원장, 성 엘리아, 성 펠리노 주교 순교자, 성 피르미노 주교, 성녀 바실리사, 성녀 크리스피나 동정 순교자
  - 6일 성 니콜라오 주교, 성 베드로 파스칼 주교 순교자, 성 아브라함 주교, 성 에밀리아노 순교자, 성 제라르도 원장, 성 테르시오 순교자, 성녀 다티바 순교자, 성녀 디오니시아 순교자, 성녀 레온시아 순교자, 성녀 아셀라 동정
  - 7일 성 마르티노 원장, 성 빅토르 주교, 성 사비노, 성 세르보 순교자, 성 아가토 순교자, 성 아니아노 주교,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성 에우티키아노 27대 교황, 성 우르바노
  -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성 소프로니오 주교, 성 에우카리오 주교, 성녀 군틸다 동정
  - 9일 성 베드로 푸리에 증거자, 성 시로 주교 순교자, 성 아벨, 성 율리아노 주교, 성녀 고르고니아 수절, 성녀 레오카디아 동정 순교자, 성녀 발다 여원장, 성녀 발레리아 동정 순교자
  - 10일 성 벤나스 순교자, 성 멜키아데스 32대 교황 순교자, 성 제멜로 순교자, 성 카르포포로 순교자, 성녀 에울탈리아 동정 순교자, 성녀 율리아 동정 순교자
  - 11일 성 다니엘 주교, 성 다마스 1세 37대 교황, 성 바르사바 순교자, 성 빅토르, 성 푸쉬아노 순교자
  - 12일 과달루페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녀 요안나 프란치스카 드 샬탈 수도자, 성 막센시오 순교자, 성 비첼리노 주교, 성 시네시오 순교자, 성 유스티오 순교자, 성녀 디오니시아 순교자, 성녀 아가타 동정, 성녀 아브라 동정, 성녀 에드부르가 여원장
  - 13일 성녀 루치아 동정 순교자, 성녀 오틀리아 동정, 성 아우트베르토 주교, 성 안티오코 순교자, 성 에우스트라시오 순교자, 성 오레스테스 순교자
  - 14일 십자가의 성 요한 사제 학자, 성 니카시오 주교 순교자, 성 마르토니아노 은수자, 성 베난시오 포르투나토 주교, 성 스피리디온 주교, 성 아넬로 원장, 성 티르소, 성 헤론 순교자, 성녀 에우트로피아 순교자
  - 15일 성 막시미노 원장, 성 발레리아노 주교 순교자, 성 우르비시오 은수자, 성 이레네오 순교자, 성 플로렌시오 원장,
  - 16일 성 나발리스 순교자, 성 다윗, 성 미사엘, 성 아나니아, 성 아도 주교, 성 아자리아, 성 에우세비오 주교 순교자, 성녀 아멜라이다 왕후 수절, 성녀 알비나 동정 순교자, 복자 요셉 마냐넛
-

# 이달의 성인

- 17일 성 다니엘, 성 라자로 성경 인물, 성 막센시올로 원장, 성 스투르미오, 성 플로리아노 순교자, 성녀 베가 수절, 성녀 비비나 여원장, 성녀 올림피아 수절, 성녀 율란다
- 18일 희망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 가시아노 주교, 성 그라시아노 주교, 성 테시데라토 증거자, 성 팔라키아, 성 비네발도 원장, 성 아우센시오 주교, 성 조시모 순교자
- 19일 성 네메시오 순교자, 성 다리오 순교자, 성 디모테오 순교자, 성 리베르토 원장, 성 마니로 주교, 성 세쿰도 순교자, 성 신디미오 순교자, 성 아나스타시오 1세 교황, 성 우르바노, 성녀 에바, 성녀 테아 순교자, 성녀 파우스타 수절
- 20일 성 도미니코 주교, 성 세레피노, 성 암몬 순교자, 성 율리오 순교자, 성 펠로고니오 주교, 실로스의 성 도미니코 원장
- 21일 성 글리세리오 순교자, 성 데미스트클레스 순교자, 성 미케아, 성 베드로 가니시오, 성 아나스타시오 주교 순교자, 성 요한 빈첸시오 주교
- 22일 성 데메트리오, 성 이스키리온 순교자, 성 제노 순교자, 성 체레몬 순교자, 성 플라비아노 순교자, 성 호노라토 순교자,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라 카브리니, 성녀 플로라 순교자
- 23일 켈티의 성 요한 사제, 성 니콜라오 팍토르 증거자, 성 다고베르토 순교자, 성 마르도니오 순교자, 성 세르볼로 증거자, 성 에바리스토, 성녀 마조타 동정, 성녀 빅토리아 동정, 성녀 빈털라 은수자, 성녀 아나톨리아 동정 순교자
- 24일 성녀 텔피노 주교, 성 아담 성경 인물, 성 에위미오 순교자, 성 카라노 주교, 성녀 아텔라 수절, 성녀 이르미나 여원장, 성녀 타르실라 동정, 성녀 하와 성경 인물
- 25일 예수 성탄, 성녀 아나스타시아 순교자, 성녀 아달신다 동정, 성녀 알부르가 수절, 성녀 에우제니아 동정 순교자
- 26일 성 디오니시오 25대 교황, 성 마리노 순교자,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성 제노 주교, 성 조시모 41대 교황, 성녀 크리스티나 은수자
- 27일 성 요한 사도 복음 사가, 성 테오도로 순교자, 성 테오파네스 주교, 성녀 니카레타 동정, 성녀 파비올라 수절
- 28일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 성 돔니오 증거자, 성 아벨, 성 인데스 순교자, 성 체사리오 순교자, 성 카스토르 순교자, 성 트로아디오 순교자, 성녀 돔나 순교자, 성녀 테오파라 순교자
- 29일 성 다윗 왕 예언자, 성 알베르토 원장, 성 크레센시오 순교자, 성 토마스 베케트 주교 순교자, 성 트로피모 주교
- 30일 성 라울, 성 라이네리오 주교, 성 리베리오, 성 베누스티아노, 성 사비노, 성 아니시오, 성녀 아니시아
- 31일 성 바르바시아노 증거자, 성 실베스테르 1세 33대 교황, 성 요한 프란치스코 레지스 증거자, 성 파비아노 순교자, 성 플로르, 성 헤르메스 순교자, 성녀 골롬바 동정 순교자, 성녀 노미난다 순교자, 성녀 도나타 순교자, 성녀 루스티카 순교자, 성녀 멜라니아 수절, 성녀 바울리나 순교자, 성녀 세로티나 순교자, 성녀 오파 여원장, 성녀 힐라리아

이달에 축일을 맞으신 바원들을 축하해주세요.